

## 조선 말기 회인현의 신분·직역과 남정책

강민식\*

- 
- I. 머리말
  - II. 회인현의 현황
    - 1. 회인현의 연혁과 지명 변화](삭제)
    - 2. 회인현의 인구변화와 면·리·통
  - III. 1876년 회인현의 신분구조
    - 1. 남정책에 나타난 신분 구성
    - 2. 면별 신분·직역과 성씨
  - IV. 맺음말
- 

### I. 머리말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중세 해체기의 양안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여러 성과를 얻었다. 크게 진천과 충주 지역에 대한 양안의 분석을 통해 당시 지역의 현황과 다양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다.<sup>1)</sup> 그러나 양안 등 토지대장의 활용은 토지소유 등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갖게 되었지만 양안 작성 전후의 신분·직역과 연결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

\* 충북대학교 강사

1) 신영우편, 2007. 『광무 양안과 진천의 사회적 변동』(해안) ; 2010. 『광무 양안과 충주의 사회경제구조』(해안).

점이 있었다. 한편 경상도 지역의 호적대장이 조선 후기의 사회사, 특히 신분·직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하고 또 많은 연구 성과를 남겼지만,<sup>2)</sup> 충북 지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기별 고찰이 가능한 호적대장이 발견되지 않아 중세 해체기의 신분사와 경제사를 연결하는 데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 신분제의 붕괴를 보여주는 호적대장이 중세사회의 해체를 설명한다면, 양안이 갖는 의미는 근대로의 이행에 대한 실증적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얼마 전 1876년에 작성한 『懷仁縣 男丁冊』(이하 남정책)<sup>3)</sup>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남정책에 나타난 면리 구조와 신분 구성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다. 반면(삭제) 단순히 면리별 호구 편성에 불과한 남정책이 이러한 연구 경향에 비견할 만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1876년이라는 특정 시기 회인현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남정책의 면·리·통 구성과 신분·직역, 그리고 호주의 표기는 이 시기 회인현의 여러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림 1. 회인현 남정책

- 2) 이에 대한 연구성과와 문제점은 송양섭, 2006. 「조선 후기 신분·직역의 연구와 ‘직역체제’의 인식」 『조선시대사학보』34, 조선시대사학회 : 권내현, 2006. 「조선 후기 호적, 호구의 성격과 새로운 쟁점」 『韓國史研究』135, 한국사연구회 참조.
- 3) 이 필자본은 모두 42장으로 책 크기는 35×21cm의 크기다. 처음 자료를 보았을 때는 한문소설이 쓰여 있었고, 뒷면에 관인이 날인되어 면리별 오가작통에 따라 호별 신분·직역·성명·연령이 표기되어 있다. 권수제는 ‘光緒二年三月日懷仁縣男丁冊’이라 하여 자료명을 ‘회인현 남정책’이라 부르고자 한다.

이 필사본을 통해 1876년 당시 회인현의 면리 현황과 남성 인구수, 신분구조 등을 정리하여 19세기를 지나며 전통적인 신분제가 해체되어 가는 모습을 1876년을 기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몇몇 인물을 중심으로 1900년 전후의 토지 소유관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회인현의 양안이나 재지 사족에 대한 연구가 있다. 왕현종은 1791년 작성된 결본 『田畝等別記』, 곧 회인현 양안을 통해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한 時主의 파악이 가능한 시점에 이르렀음을 밝혔다.<sup>4)</sup> 이어 이상순은 양현종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18~19세기의 회인현 양안을 통해 회인현 재지사족의 동향을 살펴, 19세기 초 신흥 세력의 등장으로 양안 입목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조선 말기까지 3대 세거 성씨를 중심으로 그 틀이 유지된 점과 단양우씨와 영해박씨의 토지소유는 그 영향력을 유지할 만한 수준이었음을 밝혔다.<sup>5)</sup> 최근 정경임은 충북 소읍민의 경제상황을 살펴면서 회인현의 호구, 토지소유와 경작 현황 등에 밝힌 바 있다.<sup>6)</sup>

이 글은 지금까지 조선 후기의 신분변동과 토지소유 관계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sup>7)</sup> 호적대장과 양안을 연결하는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있는가를 행정구역의 변화, 인구변동, 신분·직역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 왕현종, 2001. 「18세기 후반 양전의 변화와 ‘시주(時主)’의 성격-충청도 회인현(懷仁縣)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41, 한국역사연구회. 읍내면의 校洞坪·艾峙坪·龍上洞坪, 訥谷坪·竹岩坪·黃坪里坪, 북면의 桂山坪·首谷坪·淸龍坪·斗山坪 등 세 지구의 양안을 통해 전답의 비율, 소유자 표기 방식, 단양우씨·영해박씨·남양홍씨·고령신씨의 토지 소유 양상을 살폈다.

5) 이상순, 2005. 「조선후기 회인현 재지사족의 동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정경임, 2011. 「광무양안을 통해 본 충북 소읍민의 경제상황」 『忠北史學』 26, 충북사학회.

7) 호적대장과 경자양안에 대한 연구성과를 집약한 대표적인 편저는 다음과 같다. 호적대장연구팀편, 2003. 『단성 호적대장 연구』(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 토지대장연구반편, 1995. 『大韓帝國의 土地調査事業』(민음사) ;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편, 2008. 『조선 후기 경자양전 연구』(혜안) ; 2010.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혜안).

## II. 회인현의 현황

### 1. 회인현의 연혁과 지명 변화

懷仁은 충북 보은군의 2개면에 불과하지만 1914년까지 독립 군현의 지위를 가졌던 곳이다. 회인은 백제 때의 燕山郡(一牟山郡)에 속한 영현의 하나인 昧谷縣이었다. 본래 백제의 未谷縣을 경덕왕 때 매곡현으로 고쳐 불렀고, 고려에 이르러 회인현이라 하였다고 한다.<sup>8)</sup> 현종 때 청주 任內가 되었다가 한때 懷德에 속하게 하였다가 1383년(우왕 9) 별도의 監務를 두어 독립시켰다.<sup>9)</sup> 1413년(태종 13) 현감을 두어 다스리게 한 후,<sup>10)</sup> 조선 후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1896년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 회인군이 되었다가 1914년 보은군에 편입되었다.

한편 인접한 보은이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상주목 소속인데 반해, 회인현은 웅주-연산군에서 청주목 관할로 이어지는 차이를 보이는 점도 주목된다. 그것은 회인이 5~6세기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로서, 또 후삼국기에는 세 나라의 접경지였던 까닭이라 할 수 있다. 474년 신라가 일모성에 성을 쌓은 뒤 회인은 자연스럽게 신라의 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6세기 들어 회인 지역은 백제의 반격이 시작된 후 일시 백제의 영역이 된 것으로 보이며,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두 나라의 완충지대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왕건이 왕위에 오른 뒤 거듭 일모성을 공취하기 위한 전투를 벌일 때 회인의 향배가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930년 고창 전투 이후 회인 호족 龔直이 왕건에 귀부한 직후인 932년 7월 일모성을 고려가 차지함으로써 문의-회인-상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확보한 왕건이 이

8) 『三國史記』 권36 지리3, 燕山郡.

9) 『高麗史』 권56 지리1, 청주목 회인현.

10) 『世宗實錄』 권149, 충청도 회인현.

후 견훤에 우위를 보일 수 있었던 점이기도 하다.<sup>11)</sup>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회인현이 근래까지도 독립 군현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 아닐까 한다.

조선시대 회인현은 '산마루와 고갯길이 겹쳐 있고 羊 창자처럼 구불 구불'<sup>12)</sup>한 지리적 폐쇄성과 朴·梁·禹氏 등 세거 사족의 영향력이 조선 말기까지 지속되는 점<sup>13)</sup> 등의 특수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지도서』와 『호구총수』, 1872년 회인현 지도, 남정책 등을 통해서 회인현의 지명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면수는 변화가 없는 데, 『여지도서』에 41개 리, 『호구총수』는 54개 리, 1872년 회인현 지도에는 71개 리, 『회인면 장정책』은 77개 리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영조 때 읍내면에는 馬斤洞里·猪里·伐里·訥谷里·黃坪里·校洞里·介洞里 등 7개 리, 동면 晚昏洞里·法注里·能巖里·桂巖里·新門里·梧桐里·世村里·高草川里·艾峙里·乾川里·老城山里 등 11개 리, 서면 加亭子里·龍頭里·巨橋里·巨九里·南大門里·新邑里·陽中旨里·妙巖里·東幕洞里·馬九里 등 10개 리, 남면 楸洞里·鳥谷里·板莊里·分諸谷里·書堂坪里·陰中旨里·沙灘里 등 7개 리, 江外面은 舍音洞里·梅山里·法水里 등 3개 리, 북면 首谷里·桂山里·地境洞里 등 3개 리다.

영조 때의 회인현 동면은 지금의 내북면 범주리와 세촌리, 수한면 노성리를, 서면은 청원군 문의면 묘암리와 마동리, 마구리를 포함하는 지역이었다.

1789년(정조 13) 읍내면은 社稷洞과 龍床洞里가 늘어나 9개 리로,<sup>14)</sup> 동면은 龍興洞里·宮坪里·甫古谷里·立石里·山尺洞里 등이 늘어난 16개 리, 서면<sup>15)</sup>은 鳴谷里·鹽峙里가 늘어나 12개 리, 남면은 新垆里·都要目

11) 申虎澈, 1992. 「新羅末高麗初 味谷城 將軍 龔直」 『湖西文化研究』10,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1998. 「5.味谷山城과 城主 龔直의 活動」 『報恩 味谷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2)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회인현, 形勝, “重岡複嶺路繞羊腸.”

13) 이상순, 2005. 「조선후기 회인현 제지사족의 동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0쪽.

14) 猪里가 邳里로, 교동리가 鄉校洞里로 명칭을 달리 하였다.

15) 『호구총수』에 가정자리는 佳亭子里로, 양중지리는 湯中旨里로 표기의 차

리·松浦里가 늘어나 10개 리, 북면은 登谷里가 늘어나 4개 리가 되어 모두 13개 리가 늘어났고 강외면은 차이가 없다. 1789년 동면은 보은군 내북면 용수리·신궁리, 수한면 울산리로 확대된 모습이다.

1872년(고종 9) 읍내면은 遯里가 없어지고, 사직동이 社洞으로 명칭이 바뀌고 昌里·竹岩里·紫松里·池山里·新村里가 새로이 생겼다. 또 동면으로부터 건천리와 애치리·보고곡리·고초천리·입석리가 편입되면서 모두 9개 리가 늘어난 18개 리가 되었다. 동면은 鹽屯里·新坪里·葛峙里·車嶺里·後栗里·東井里·地境里가 새로 늘어났고, 만지동리를 서면에, 읍내면에 위 5개 리를 넘겨주면서 17개 리가 되었다. 서면은 後谷里·漁城里·馬場里가 새로 생기고 동면에서 만지동리를 넘겨받아 16개 리가 되었다. 남면은 도요목리가 없어지고 金谷里·宕山里·楓溪里가 생기면서 12개 리로 바뀌었다. 강외면은 杏亭里가 생기면서 4개 리로, 북면은 차이가 없다.

1872년의 변화는 읍내면이 크게 확대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의 회인면 죽암리·송평리·부수리 일대로 자연 마을은 죽암과 자송, 새터[新村], 모산[池山]이 있다.<sup>16)</sup> 반면 동면은 읍내면에 5개 리를 넘겨준 대신 지금의 보은군 내북면 염둔리와 하궁리, 수한면 차정리·울산리 일대를 편입하였다. 서면은 지금의 회남면 어성리와 신곡리 일대, 그리고 문의면 마동리 일대를 편입하였다. 서면의 경우 후곡리와 어성리는 금강변에 새로이 생긴 마을이고, 새로이 편입된 마장리는 현 문의면 지역으로 보다 서쪽으로 넓혀진 것이다. 남면은 서면에 인접하여 금곡리와 보다 아래쪽 용호리의 바탕외[宕山]와 큰말[楓溪] 등으로 외연을 넓혀갔다. 바탕외와 큰말은 현재 수몰되어 자취가 없다. 강외면에서는 행정리가 새로 편입되었다.

1876년(고종 13) 읍내면의 사동이 上·下社洞里로 나뉘어 19개 리로, 동면은 坪里·槐亭里·草介洞里가 새로이 생겨 20개 리가 되었다.<sup>17)</sup> 서

이나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16) 이 때 생긴 昌里는 1895년 坪昌里로 바꾸었다가 1914년 회북면 중앙리에 마근동·사동·눌곡리 일부와 함께 편입되었다. 지금의 회인면 소재지에 해당한다.

면은 변화가 없고, 남면은 추동리가 상·하로 나뉘고 地承洞里·沙潭里가 생기면서 15개 리로 바뀌었다. 강외면과 북면은 기존 4개 리가 유지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회인현의 면리 변화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시기별 면별 리의 변화

구분	여지도서	호구총수 (1789)	1872년	1876년
읍내면	馬斤洞里 豬里 伐里 訥谷里 黃坪里 校洞里 介洞里(7)	馬斤洞里 遜里 伐里 訥谷里 黃坪里 鄉校洞里 介洞里 社稷洞 龍床洞里(9)	馬斤洞里 伐里 訥谷里 黃坪里 校洞里 介洞里 社洞 龍床洞里 昌里 竹岩里 紫松里 池山里 新村里 乾川里 艾峙里 甫古谷里 高草川里 立石里(18)	馬斤洞里 伐里 訥谷里 黃坪里 校洞里 介洞里 上社洞里 下社洞里 龍床洞里 昌里 竹岩里 紫松里 池山里 新村里 乾川里 艾峙里 甫古谷里 高草川里 立石里(19)
동면	晚旨洞里 法注里 能巖里 桂巖里 新門里 梧桐里 世村里 高草川里 艾峙里 乾川里 老城山里(11)	晚旨洞里 法注里 能巖里 桂巖里 新門里 梧桐里 世村里 高草川里 艾峙里 乾川里 老城山里 龍興洞里 宮坪里 甫古谷里 立石里 山尺洞里(16)	法注里 能巖里 桂巖里 新門里 梧桐里 世村里 老城山里 龍興洞里 宮坪里 山尺洞里 鹽屯里 新坪里 葛峙里 車嶺里 後栗里 東井里 地境里(17)	法注里 能巖里 桂巖里 新門里 梧桐里 世村里 老城山里 龍興洞里 宮坪里 山尺洞里 鹽屯里 新坪里 葛峙里 車嶺里 後栗里 東井里 地境里 坪里 槐亭里 草介洞里(20)

17) 동면의 초개동리는 현재의 회인면 쌍암리 초개골이나, 평리와 괴정리는 1895년과 1914년의 지명개정에도 보이지 않아 어디인지 알 수 없다.

구분	여지도서	호구총수 (1789)	1872년	1876년
서면	加亭子里 龍頭里 巨橋里 巨九里 南 大門里 新邑里 陽 中旨里 妙巖里 東 幕洞里 馬九里(10)	加亭子里 龍頭里 巨橋里 巨九里 南 大門里 新邑里 陽 中旨里 妙巖里 東 幕洞里 馬九里 鳴谷里 鹽峙里(12)	加亭子里 龍頭里 巨橋里 巨九里 南 大門里 新邑里 陽 中旨里 妙巖里 東 幕洞里 馬九里 鳴谷里 鹽峙里 後谷里 漁城里 馬 場里 晚旨洞里(16)	→
남면	楸洞里 鳥谷里 板 莊里 分諸谷里 書 堂坪里 陰中旨里 沙灘里(7)	楸洞里 鳥谷里 板 莊里 分諸谷里 書 堂坪里 陰中旨里 沙灘里 新岱里 都要日里 松浦里(10)	楸洞里 鳥谷里 板 莊里 分諸谷里 書 堂坪里 陰中旨里 沙灘里 新岱里 松浦里 金谷里 宕山里 楓 溪里(12)	上楸洞里 下楸洞 里 鳥谷里 板莊里 分諸谷里 書堂坪 里 陰中旨里 沙灘 里 新岱里 松浦里 金谷里 宕山里 楓 溪里 地承洞里·沙潭里 (15)
강외면	舍音洞里 梅山里 法水里(3)	→	舍音洞里 梅山里 法水里 杏亭里(4)	→
북면	首谷里 桂山里 地 境洞里(3)	首谷里 桂山里 地 境洞里 登谷里(4)	→	→

대체적인 면별 확장 현상은 읍내면이 동쪽으로, 동면은 읍내면에 떼어준 만큼 다시 동쪽으로, 서면과 남면은 각각 서쪽과 남쪽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1872년과 1876년의 면리 변화는 전체적인 인구 증가와도 관련 있으며 새로운 마을이 생겨나면서 리의 수가 늘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연 인구의 증가와 함께 면리 체계의 개편에 따른 인구 집중화도 병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회인현의 인구변화와 면·리·통

회인현의 인구는 조선 전기와 후기에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회인현은 146戶에 633口였고, 『여지도서』 방리에는 編戶가 1,006호, 남 1,405口·여 1,406구로 남녀 2,811명이다. 영조 때 6.6배나 크게 늘어난 호수 증가에 비해 인구 증가는 4.5배에 불과한 것은 양반호를 포함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戶口總數』의 회인현 元戶는 1,190, 인구는 4,468구(남 2,332, 여 2,136)로 영조 때에 비해 서도 크게 증가하였다.

1872년 원호는 1,289호, 인구는 4,854구(남 2,669, 여 2,185)로, 1789년에 비해 100여 호, 300명에 가까운 인구가 증가하였다. 특히 읍내면과 동면의 원호가 증가하였고, 남자 인구가 크게 증가한 특징을 보인다. 18세기에 이르러 새로운 인구의 유입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sup>18)</sup>

이어 살펴볼 남정책은 1,294호에 남자는 1,772명이다. 편호의 수는 늘었으나 1876년에 이르러 남정수가 크게 감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sup>19)</sup> 그리고 누락된 호가 50호로 결호의 비중이 2.74%에 이르는 점

- 18) 정경임의 앞 글(2011)에서 조선시대의 읍지별 호구 현황에 대한 정리가 있다. 회인현만 인용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세종실록 (1454)	호서승람 (1632~40)	여지도서 (1757~65)	충청도읍지 (1835~49)	대동지지 (1861~66)	호서읍지 (1871)	읍지 (1899)
戶	146	271	964	1,244	1,247	1,289	1,114
口	633	-	2,845	4,414	4,445	4,862	4,132

영조 때에 이르러 회인현의 호구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 1757년(영조 33) 청주의 월경지인 周岸面을 회인현에 예속시킨 결과라고 하였다(앞의 글, 72쪽). 그런데 『여지도서』 청주목 방리조에 여전히 주안면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 비록 1757년의 割屬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江外面 3개 리에 불과한 것이다.

- 19) 남정수가 크게 감소한 원인에 대해 살피지 못했다. 이상순은 19세기 70여 년간 향안 작성이 지체된 것은 1862년(철종 13) 임술농민항쟁의 여파로 회인에서도 樵軍의 봉기에서 찾고 있다(이상순, 2005. 앞 글, 41쪽). 그러나 1870년 庚午式 호구조사의 결과로 보이는 1872년 회인현 지도에는 앞 시기보다 증가된 현황을 보여, 1876년의 감소 요인을 설명하기에 주저된다.

도 주목된다.

표 2. 면별 편호수와 인구수

면명	『여지도서』 <sup>20)</sup>			『호구총수』			회인현지도(1872)			『회인현남정책』 <sup>21)</sup>	
	편호	남	여	元戶	남	여	원호	남	여	편호	남
邑內面	222	288	273	233	495	383	395	787	650	370	542
東面	209	346	298	376	699	672	339	710	578	346	520
西面	196	266	301	232	459	412	233	493	425	231	299
南面	137	213	181	168	331	315	166	344	308	186	249
江外面	83	114	163	76	145	151	76	139	118	78	78
北面	159	178	190	105	203	203	80	196	106	83	84
계	1006	1405	1406	1190	2332	2136	1289	2669	2185	1,294	1772

조선 전기에 비해 『호서승람』 작성 시기에 이르러 두 배 가까이 호수가 늘어났고, 이후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전기에 비해 7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였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 재해가 많았던 회인현에 대한 지속적인 宣撫策의 결과라 할 수 있다.<sup>22)</sup>

그런데 1901년 작성된 『회인현 양안』엔 민호가 2,430호로 나타나,<sup>23)</sup> 조선 후기 1,200호 내외와 비교할 때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추이는 조선 시기 내내 모든 인구가 호적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해와도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sup>24)</sup> 한편 편호와 원호의 용어 문제는 자연호 중 배정된 호구수에 맞추어 편제한 것을 원호라 하고, 원호는 편

20) 표에 명시된 편호수와 인구수는 각 면리별로 정리한 것이다. 『여지도서』 회인현 방리조 끝에 정리된 편호 964, 남 1,398구, 여 1,447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21) 『회인현 장정책』 끝부분에 원호 1,291호라 하였으나 실제 호수는 1,295호이고, 통호가 명시되어 있으나 인명이 빠진 경우는 모두 50호다. 또 결호를 포함한 전체 남정수는 1,822명이다.

22) 이상순, 2005. 앞 글, 11~12쪽.

23) 『光武五年辛丑六月日 忠淸北道懷仁郡量案』, “居民貳仟肆佰貳拾肆戶.”

24) 송양섭, 2005. 앞 글, 134~135쪽.

제된 호란 의미에서 편호로 표기되기도 하였다.<sup>25)</sup>

다음으로는 남정책의 면리별 편호와 남정수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오가작통에 따라 구분된 회인현 면리의 편호와 남정수는 일정하지 않다. 오가작통은 조선 전기에 마련되었으나,<sup>26)</sup> 이러한 원칙은 줄곧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제도의 시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고, 1675년(숙종 1) 備局에서 五家統事目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체계화되었다.<sup>27)</sup> 또 이 사목에 따라 리의 크기가 규정되었는데 小리는 5~10통, 중리는 11~20통, 대리는 20~30통으로 하였다.

다음에는 면별 리·통수의 현황을 살펴보겠다.

읍내면은 19개 리 71개 통으로 구성되었다. 평균 3.7개 통인데, 입석리와 개동리, 신촌리는 단지 1개 통으로, 죽암리와 자송리, 지산리, 보고곡리는 2개 통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상사동리와 벌리, 고초천리 6개 통으로, 마근동리와 눌곡리는 7개 통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다과의 차이는 관아가 위치한 중심지와 영해박씨의 집성촌인 눌곡리에 인구가 밀집되는 현상이며, 개동리를 제외하면 1872~1876년 새로이 편입된 죽암리·지산리·신촌리·보고곡리·입석리는 1~2개 통에 불과한 지역이다.

동면은 20개 리로 회인현에서 가장 많은 리가 편성되었다. 모두 70개 통으로 리별 3.5개 통이다. 읍내면에 비해 리는 많으나 오히려 통수는 적어 인구 밀집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평리와 궁평리, 차령리, 후울리는 1개 통으로, 갈치리는 2개 통, 용흥동리는 9개 통으로 가장 많다. 평리와 차령리, 후울리는 새로 편제한 곳으로 인구가 적은 특징을 보인다. 반면 9개 통의 용흥동리는 지금의 내북면 용수리 지역

25) 정진영, 2002. 「조선후기 호적대상 ‘호(戶)’의 편제(編制) 양상-『제주 대정현 하모슬리 호적중초』(1843~1907)의 분석-」 『역사와 현실』45, 한국역사연구회, 257쪽.

26) 『經國大典』 卷2, 戶典 戶籍, “京外 以五戶爲一統 有統主 外卽每五統 有里正 每一面 有勸農官 地廣戶多則量加.”

27) 『숙종실록』 권4, 1년 10월 辛亥. 남정책에는 里正이나 권농관이 보이지 않는다.

으로 주요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서면은 16개 리로 47개 통으로 리별 평균 2.9통의 비율이다. 읍내면과 동면에 비해 호구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만지동리와 어성리는 1개 통으로, 남대문리와 염치리, 마장리, 동막동리는 2개 통이다. 서면에서 가장 큰 리로 거교리는 8개 통이다. 만지동리는 동면으로 넘겨받은 곳으로 어성리와 함께 현재 수몰되어 촌락의 자취를 찾을 수 없다. 지금의 문의면 관할인 염치리, 마장리, 동막동리는 회인면과 남북으로 길게 인접한 곳이다.

남쪽으로 점차 넓혀진 남면은 15개 리, 37개 통으로 리별 평균 2.4개 통이다. 남면 지역은 금강에 접해 있거나 산간 지역으로 면적에 비해 호구는 적은 편이다. 1876년 상·하로 나뉜 추동리는 3개 통에 불과하고, 지승동리와 사탄리는 각 1개 통, 금곡리, 사담리, 탕산리, 풍계리, 서당평리, 송포리 2개 통이다. 사탄리를 제외하면 대체로 새로이 편제된 리이다.

강외면은 4개 리, 15개 통으로 리별 평균 3.75통이다. 이곳은 1757년(영조 33) 청주의 周岸面에서 割屬된 곳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sup>28)</sup> 금강 본류를 건너야 하는 불편함에도 회인현에 편제된 곳이다.

북면은 피반령을 경계로 그 이북 지역인데 현재 청원군 가덕면에 속한 곳으로 4개 리, 16개 통이다. 리별 평균 4개 통으로 회인면에서 가장 호구가 밀집된 지역이다. 피반령 바로 아래의 계산리는 8개 통으로 가장 호구가 많은 곳인데 반해 등곡리는 1개 통, 3호에 불과하다.

리별 통수로 그 크기를 구분하면 회인현의 리는 小里에도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1~2개 통에 불과한 리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통별 호수는 대체로 5호가 지켜졌다. 마지막 통에는 남는 호

28) 『영조실록』 권90, 33년 7월 16일(병오). 우의정 申晩이 丹懷御史의 계언으로 아뢴 글 중에, ‘회인은 고을이 가장 僻小하고 백성이 적는데 부역이 많아 살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주안면은 회인의 남쪽에 있어 경계가 붙어 있고 청주와는 이어진 곳이 없으니 이쪽을 떼어 저쪽에 보태면 殘邑의 폐단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 왕이 따랐다.

를 더하여 6~7호에 이르는 경우가 38개 통에 이르고, 3호는 떼어 별도의 통으로 구분하였다.

전체적으로 회인현의 호구 밀집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면별 양상이 달리 보이는데, 대별하면 리별 통수를 통해 호구가 적은 강의 면과 북면을 제외하면 대체로 읍내면과 동면의 호구 밀집도가 높는데 관아와 향교, 세거성씨를 중심으로 촌락이 형성된 배경을 보여준다. 반면 서면과 남면은 밀집도가 낮은 편이다. 두 지역 모두 산간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금강변이나 좁은 계곡을 따라 촌락을 이룬 양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 Ⅲ. 1876년 회인현의 신분구조

#### 1. 남정책에 나타난 신분 구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후기 회인현의 인구는 조선 전기에 비해 크게 늘어난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1876년 『회인현 남정책』 편제 당시에는 편호는 늘어났지만 남정수는 오히려 감소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회인현 장정책』에 나타난 신분·지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신분·지역의 분석은 挾人을 제외한 편호를 기준으로 하였다. 1896년 당시 회인현의 원호는 모두 1,294호인데, 유학·한량 등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승정·가선 등 품계를, 또 직역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우선 논란이 큰 양반호를 분류하면, 진사·생원의 경우 별 무리 없이 양반호로 분류할 수 있으나 幼學이 문제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冒稱·冒錄 유학의 경우는 이 시기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다. 그렇지만 유학은 호구대장이 아닌 남정책을 통해서도 四祖나 처의 호칭 등을 통해 분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우선 양반호로 분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유학과 한량에 대해서는 『號牌事目』 7조 기사를 통해 이

해되어 왔다.<sup>29)</sup> 곧 유학은 무학에 대비되며 京外에서 학생과 교생임을, 그리고 한량은 향교에 입학 하지 않은 유생을 칭한다고 하였다. 대체로 조선 후기에 이르러 生死를 불문하고 학생보다는 유학을 선호하면서,<sup>30)</sup> 유학의 신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반면 향교에 입학 하지 않은 유생을 뜻하던 한량은 후기에 이르러 지위가 크게 격하되었는데, 양반·중인·양인 등 천민을 제외한 다양한 신분층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한량은 숙종 22년부터 양반의 業武者를, 업무는 서얼의 업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직역으로 확정되었다.<sup>31)</sup>

한편 조선 전기의 校生은 향교에서 수업하는 유생을 이르는 양반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중엽 이후 향교의 교생은 ‘校生落講充軍’과 서원 남설에 따라 점차 서얼과 평민 출신으로 충원되면서 유학과 구분되기 시작하였다.<sup>32)</sup>

업유에 대해서는 1625년(인조 3) 8월 호패청의 계문에, ‘사족의 蔭子孫으로 미쳐 입학하지 않은 자는 업유라 부른다’고 하였으나,<sup>33)</sup> 숙종 때의 『號牌事目』 後錄<sup>34)</sup>에 업유와 업무는 서얼 출신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업유·업무·무학·한량·충의위를 17세기 이후 班·常의 중간 존재인 중인 직역으로 이해한 견해를 따른다.<sup>35)</sup>

貢生은 조선 전기에 소수의 인원이 사마시에 입격한 사례가 있으

29) 『號牌事目』(奎12344), “유학은 서울의 四學이나 성균관 학생을, 지방은 향교의 校生, 혹은 額外 교생을 이른다. 武學은 곧 무학생을 이르는 말이니 … 무릇 유생은 반드시 학교에 속해야 하나 비록 初試에 합격해도 학교에 속하게 한다. 入錄하지 않은 자는 비록 유생이라도 한량이라 쓴다.”

30) 崔永浩, 1984. 「幼學·學生·校生考」 『역사학보』101, 역사학회, 5~6쪽.

31) 李俊九, 1993. 『朝鮮後期 身分職役變動研究』, 일조각, 99~105쪽.

32) 崔永浩, 앞의 글(1984), 14~19쪽.

33) 『인조실록』 권9, 3년 8월 8일(갑신).

34) 『비변사등록』 숙종 4년(1678) 4월 15일. “서얼 자손은 그 아버지가 출신인지 여부를 막론하고 소목패를 허용한다. 업유의 경우 역의 이름을 학생·교생이라 쓰고 武班의 서자는 業武라고 쓴다.”

35) 李俊九, 1993. 앞 책, 27~28쪽. 김석희, 2004. 『조선후기 지방사회사연구』(해안), 239쪽 주 21).

나,<sup>36)</sup> 후기에 이르러 記官에 오를 자격이 있는 향리의 자손이거나 吏職을 맡지 않고 儒業에 종사하는 신분으로,<sup>37)</sup> 중인호로 분류하였다.

회인은 행정구역 내에 驛이 하나도 없지만 驛屬인이 여럿 있다. 驛吏는 『經國大典』과 『續大典』의 公賤에서 취급하고 있지만,<sup>38)</sup> 身良役賤으로 파악하여 양인으로 분류하였다.<sup>39)</sup>

남정책에 나타난 신분·직역을 양반·중인·양인·천민호로 나누어,<sup>40)</sup> 양반호는 幼學, 崇政·嘉善·通政大夫·折衝·通德郎, 進士·生員·同知·參奉·判官·宗親으로, 중인호는 族親衛·閑良·業儒·業武·出身·忠衛·童蒙·校生·校保·保直·貢生·首校·將校·軍官·鄉吏, 양인호는 驛吏·驛人·驛卒·藥吏·藥保·良人·白戶·保人·日守·守僕·火砲·店人, 천인호는 才人·私奴으로 구분하였다.

면별 신분·직역 구성은 아래와 같다. 읍내면은 모두 370호로, 幼學 163호·閑良 82호·貢生 22호·良人 18호·日守 11호·白戶 10호·童蒙 5호·校生 5호·軍官 5호·保人 4호·忠衛 4호·嘉善 3호·通德郎 3호·業武 3호·業儒 2호·通政大夫 2호·驛吏 2호, 그리고 각 1호씩의 校保·保直·首校·守僕·驛人·將校·才人·折衝·參奉·判官·鄉吏, 不明 15호 중 靑호 10호다. 양반호로 분류할 수 있는 유학·가선·통정대부·절충·통덕랑·참봉·판관을 합치면 모두 174호로 47%의 비중이다. 면내에 관아와 향교가 있어 중

36) 회인홍씨인 洪士燭이 1507년(중종 2) 정묘 증광시 생원 3등 29위로 입격한 사례가 있는데, 그의 전력이 貢生이었다. 토성인 회인홍씨의 직역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37) 李勛相, 1990. 『朝鮮後期の 郷吏』, 일조각, 236쪽.

38) 『經國大典』 권5, 賤妻妾子女, “郷吏·驛吏·鹽干·牧子 등은 婢 소생의 자식은 父의 役에 따르게 하고 며슬에 나아갈 수 없다.” 『續大典』 刑典 公賤, “역리가 良女를 娶妻하여 낳은 자식은 역리로 하고 여자는 驛女로 하며, 또 公私賤은 娶妻하여 소생한 남녀는 모두 母役에 따르게 한다.”

39) 李俊九, 1993. 앞 책, 218~219쪽.

40) 李俊九, 1993. 앞 책, 8쪽 <표1-1> 身分構造에 대한 諸家の 見害, 32쪽 <표1-2> 身分別 職役의 分類 基準表 참조. 32쪽의 기준표에 따르면 중인은 일시적 免役 또는 歇役으로 閑遊하는 者, 忠義衛(18세기 후반 이후), 武學·기타 諸衛(17세기 중반 이후), 校生, 院生, 閑良, 出身(사족이 아닌 中·常民), 諸軍官, 旗牌官, 知穀官, 都訓導, 兼司僕, 庶孽, 許通, 業儒·業武(숙종 22년 이후), 戶長, 記官, 貢生, 律生, 醫生, 帶品職 등이다.

인호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중인호로 분류한 한량·공생·동몽·교생·수교·장교·군관·충위·업무·업유·교보·보직·향리는 133호로 35.9%이다. 반면 국역을 담당할 양인호는 47호에 불과한 12.7%이다.

동면은 모두 346호로, 유학 186호·한량 85호·양인 12호·업무 8호·업유 5호·동몽 4호·역리 4호·가선 3호·군관 3호·통정 3호·族親衛 2호·통덕(랑) 2호·火炮 2호, 공생·교생·보인·생원·崇政·절충·참봉·忠衛 각 1호, 私奴 3호, 불명 16호 중 꺾호 11호 등이다. 양반호는 유학·가선·통정·통덕(랑)·생원·승정·절충·참봉로 모두 198호로 57.2%이다. 중인호는 한량·업무·업유·동몽·군관·족친위·공생·교생·충위 110호로 31.8%이다. 양인호는 19호(5.5%)이며, 천인호로 사노 3호가 편호된 특징을 보인다.

서면은 전체 231호로, 유학 131호·한량 29호·藥保 19호·양인 10호·업무 7호·교생 5호·역리 3호·역인 2호·동몽 2호·업유 2호·宗親 2호·통정 2호, 藥吏·才人·進士 각 1호이고, 불명 14호 중 꺾호는 10호이다. 양반호는 유학·종친·통정·진사로 모두 136호로 58.6%이다. 중인호는 한량·업무·교생·동몽·업유 45호로 19.4%이다. 양인호는 35호 15.1%이다.

남면은 모두 186호로, 유학 121호·한량 25호·역인 9호·업유 8호·양인 4호·店人 3호·동몽 2호·역리 2호·통정 2호, 교생·驛卒·충위 각 1호, 불명 7호 중 꺾호는 3호다. 양반호는 유학·통정 123호로 66.1%의 비중이다. 중인호는 한량·업무·동몽·교생·충위 37호 19.9%이다. 양인호는 19호로 10.2%인데, 역리·역인·역졸 등 역속인이 12호로 단연 비중이 높고, 점인 3호가 보이는 점도 특징이다.

강외면은 모두 78호로, 유학 48호·한량 13호·동몽 2호, 통정·역리·역인 각 1호, 불명 12호 중 꺾호 8호이다. 양반호는 유학·통정이 49호로 62.8%이다. 중인호는 한량·동몽 15호 19.2%, 양인호는 역리·역인 각 1호로, 신분·직역이 대체로 단순하다.

북면은 모두 83호로, 유학 47호·한량 19호·양인 4호, 同知·사노·역인·出身·통정 각 1호, 불명 8호는 모두 꺾호이다. 양반호는 유학·동지·통정 49호로 59%이다. 중인호는 한량·출신 20호 24.1%이다.

이상 6개 면의 신분별 구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 면별 신분 구성

구분	양반호	중인호	양인호	천인호	불명	계(%)
읍내면	174(47.0)	133(36.0)	47(12.7)	1(0.3)	15(4.0)	370(100)
동 면	198(57.2)	110(31.8)	19(5.5)	3(0.9)	16(4.6)	346(100)
서 면	136(58.9)	45(19.5)	35(15.1)	1(0.4)	14(6.1)	231(100)
남 면	123(66.1)	37(19.9)	19(10.2)	0	7(3.8)	186(100)
강외면	49(62.8)	15(19.2)	2(2.6)	0	12(15.4)	78(100)
북면	49(59.0)	20(24.1)	5(6.0)	1(1.2)	8(9.7)	83(100)
계	729(56.3)	360(27.8)	127(9.8)	6(0.5)	72	1,294

위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876년 당시 신분별 비중은 양반 56%, 중인 27.8%, 양인 9.8%, 천인 0.5%이다. 불명호 73호 중 궤호가 50호 이므로 실제 신분·직역을 알 수 없는 호는 23호로 이들은 양인호로 분류한다면 양인호는 모두 150호로 11.6%의 비중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신분제가 해체되어 가는 19세기 말의 전국적인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데, 중인호의 비중을 주목할 수 있다. 그것은 중인호로 분류한 업유·업무·한량이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 班·常의 중간에 위치하여 신분 변동의 주된 주체이다. 그렇다면 회인현의 신분제 해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디게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이들을 양반으로 보아야 하나 망설이게 된다. 면별 구성을 대략 살펴보면 읍내면과 동면 지역이 높고, 호구가 적은 남면과 서면, 강외면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중인호의 주요 신분·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표 4. 면별 중인호의 세부 직역

구분	계	閑良 (出身)	業儒	業武	童蒙·校生 (校保·保直)	鄉吏·貢生	武官(首校· 將校·軍官)	諸衛
읍내면	133	82	2	3	12	23	7	4
동 면	110	85	5	8	5	1	3	3
서 면	45	29	2	7	7	0	0	0

남 면	37	25	8	0	3	0	0	1
강외면	15	13	0	0	2	0	0	0
북면	20	20	0	0	0	0	0	0
계	360	254	17	18	29	24	10	8

한량이 단연 비중이 높은 70.6%로, 한량과 업유·업무를 ‘준양반’으로 편성하여 양반호로 구분할 경우 양반호의 비중은 78.6%에 달한다. 다음으로 동몽·교생 등이 8.1%, 향리·공생이 6.7%이다. 면별 특징은 읍내면의 경우 관아와 향교가 있어 이와 관련된 직역 호구가 많다. 반면 남면과 강외면, 북면의 경우 한량을 제외한 중인호가 거의 없다는 점도 주목된다. 호구의 밀집도와 같은 양상으로 외곽으로 가면서 중인호의 비중도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한편, 양반호의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5. 면별 양반호의 신분·직역

구분	계	幼學	進士·生員	品官	기타
읍내면	174	163	0	9	2(참봉,관관)
동 면	198	186	1	10	1(참봉)
서 면	136	131	1	2	2(중찬)
남 면	123	121	0	2	0
강외면	49	48	0	1	0
북 면	49	47	0	1	1(同知)
계	729	696	2	25	6

유학이 95.5%의 비중으로 단연 높다. 실제 유학의 실체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회인현 유학을 모두 양반호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단서는 아래에서 면별 신분·직역을 살펴보고, 남정책 직후에 작성된 향안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 2. 면별 신분·지역과 성씨

이제 면별 신분·지역 구성의 차이점을 찾아보도록 하자.

읍내면은 다른 면에 비해 편호와 남정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이다.<sup>41)</sup> 반면 양반호의 비중은 평균 56.3%에 못미치는 47% 정도이다. 그것은 관아와 향교가 위치하는 관계로 중인호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향리와 공생이 23호,<sup>42)</sup> 동몽·교생 등이 12호, 무관직이 7호 등이 읍내면에 집중되는데 중인호는 주로 상·하사동리와 마근동리, 교동리에 거주한다.

『여지도서』 회인현 관직 중 좌수 1, 별감 1, 군관 8, 아전 14, 知印 9, 사령 11, 卑 11명인데, 남정책에 입록된 향리·공생과 무관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지는 의문이다. 다만 군관은 읍내면 5호와 동면 3호로 정원 그대로 이고, 日守가 11호으로 使令의 수와 같다.

읍내면의 校生은 5호로, 동면 1호·서면 5호·남면 1호와 함께 전체 12호이다. 회인현의 교생은 1684년(숙종 10) 장적에 누락되어 균역을 기피한 62명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sup>43)</sup> 주목되는데 童蒙 15호와 校保·保直 각 1호를 포함하면 전체 29호로 『경국대전』의 정원 30인 이하이다.

읍내면에서 주목되는 현상 중의 하나는 양반촌, 집성촌으로 늘곡리의 영해박씨와 애치리의 단양우씨가 돋보인다. 읍내면의 경우 유학은 늘곡리가 전체 편호를 차지하고 단양우씨의 집성촌인 애치리의 경우도 유학호 비중이 높다.

늘곡리는 2통 1호 金弘詢, 2통 5호 吳璣秀를 제외하면 나머지 32호

41) 협호가 많은 것도 한 특징이다. 양반호의 협호가 많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貢生도 협호가 많은 점도 주목된다. 읍내면 상사동리 거주 공생 鄭斗鎬(39세)는 5통 4호의 主戶이나 1통 3호 공생 鄭在澈(60세)의 아들로 협호를 이루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42) 향리로 특정된 인물은 1명에 불과한데 읍내면 상사동리 거주 洪洛中(54세)와 洪亨萬·洪三萬 두 아들로 호를 이루었다. 회인현 향리·공생 24호 중 동면의 공생 1호를 제외하면 모두 읍내면에 거주하고 있다.

43) 『備邊司謄錄』 숙종 10년 7월 26일, 28일.

가 모두 박씨이다. 또 6통 5호 朴春成만 한량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학이다. 영해박씨는 시조로부터 40세 朴操가 충청도관찰사를 역임한 후 계유정란 이후 옥천에 은거하면서 후손들이 세거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아들 朴彩가 청주목사를 지냈고, 43세 朴胤洪의 묘가 옥천 안내면에 자리한 것을 보면 40~43세는 옥천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46세 朴孝元(1604~1662)이 광해군 때 회인 놀곡리로 옮겨오면서 비로소 세거하기 시작하였다.<sup>44)</sup>



그림 2. 읍내면 놀곡리 부분

단양우씨가 세거하는 애치리는 총 23호 중 15호가 우씨인데, 임진왜란 때 禹世文이 고석리로 입향하였다가 그의 아들 禹見龍이 애치리로 옮겨온 것이라 한다.<sup>45)</sup> 애치리는 4통 1호 驛人 高五得을 제외하면 모두 유학호로 양반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읍내면의 고초천리·입석리 등지는 1914년 高石里로 통합되는데, 이곳은 일제강점기 文化柳氏의 집성촌으로 소개하고 있다. 전체 62호 중

44) 박효원의 부친 朴忠立(1582~1641)이 임진왜란 때 회인으로 피난하였고 하는데, 부인은 南陽洪氏다. 회인은 남양홍씨의 친정어미가 아닌가 한다.

45) 이상순, 2005. 앞 글, 13쪽. 현 회인면 애곡리 애치 마을에는 단양우씨로 고려 때의 명신 禹倬·禹吉生·禹玄寶(1333~1400)의 위패를 봉안한 尙賢祠가 있다. 안내면에 1549년 세덕사로 창건하였다고 하는데, 입향 시기와 차이를 보인다.

52호 322명이 문화류씨라 하였는데,<sup>46)</sup> 남정책에는 고초천리 32호 중 20호가 류씨로 모두 유학이다.

읍내면의 경우 늘곡리, 애치리, 고초천리가 각각 영해박씨, 단양우씨, 문화류씨의 집성촌으로 대표적인 양반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입향 시기는 대체로 양란 이후로 볼 수 있다.

한편 읍내면의 양인호 중 白戶는 昌里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총 26호 중 4통과 5통 10호가 모두 백호이다. 창리는 양반호가 한 호도 없는 차이를 보인다. 창리는 1872년 회인현 지도에 처음 보이는데 현재 지명에서 확인할 수 없다. 단지 백호라는 특정 지역과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다.

동면의 신분·지역은 읍내면과 유사하다. 편호와 남정수는 읍내면 다음으로 많으며, 양반호는 여러 면 중 가장 많으나 57.2%로 평균치에 가깝다. 양반호 중 유학은 94%의 비중으로 읍내면과 비슷하다. 중인호는 읍내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한량을 제외한 다른 지역이 고루 분포한다.

동면에서는 특정 성씨의 집성촌은 나타나지 않으나, 梧洞里·新門里·桂岩里·能岩里·草山洞里는 전부(계암리·결호 1를 포함한 초개동리)이거나 1~2호를 제외하면 모두 유학호로서 양반촌이라 할 수 있다. 계암리 2통 2호 朴麟九는 1873년(고종 10) 계유 식년시 생원 2등 19위로 입격한 인물이다. 본관은 密陽으로 영해박씨뿐만 아니라 다른 본관의 박씨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다.

서면은 회인현에서 읍내면과 동면에 이어 세 번째의 편호와 남정수를 가진다. 양반호의 비중은 58.6%로 평균치인데, 양인호의 비중은 제일 높은 15.1%이다. 양반촌으로 분류할 수 있는 리는 명곡리·용두리·거교리·남대문리·거구리·후곡리·신읍리·마장리·동막동리 등으로 유학호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2개 통 11호에 불과한 동막동리는 1통 4호 최씨가를 제외하면 모두 유학호인데 奉氏가 7호로 河陰奉氏의 집성촌이라 할 수 있다.<sup>47)</sup> 또 거교리의 '巨橋 韓氏'가 1898년 회인 향안에 등록

46) 朝鮮總督府, 1933. 『朝鮮の聚落(後篇)』(朝鮮印刷株式會社), 464쪽.

되기 시작하였고, 토지 소유규모도 1결 미만으로 이즈음 회인 향론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sup>48)</sup> 남정책에서 거교리는 8개 통 38호로 한씨는 12호로 모두 유학이다. 한씨의 비중은 높지 않지만, 다양한 여타 성씨에 비해 밀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서면의 佳亭子里는 지금의 회남면 용곡리 일원인데, 5개 통 24호인데, 藥吏와 藥保 20호로 우세를 보인다. 『여지도서』 회인현 進貢에 다양한 약재의 월별 진상 목록이 보이는데,<sup>49)</sup> 이와 관련된 지역이 아닐까 한다. 또 馬九里 3통 16호 중 유학호 2호, 중인호 6호로 나머지 10호가 양인호로, 가정자리 다음으로 양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다.



그림 3. 서면 가정자리 부분

남면은 회인현에서 네 번째의 편호와 남정수로 편제되었는데, 양반

47) 이곳에 奉石柱(1418~1465)의 不祧廟가 있다. 달리 江城祠, 河陰祠로 불리는데, 1694년(숙종 20)에 건립한 것이다. 봉석주는 무예가 뛰어났고, 1401년(단종 1) 계유정란 때 정난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1465년 역모죄로 몰려 주살되었으나 1495년(연산군 1) 자손들의 상소로 신원되고 다시 江城君에 봉해졌다.

48) 이상순, 2005. 앞 글, 47~48쪽.

49) 『여지도서』 충청도 회인현, 進貢[二月令藥材清蜜二升 三月令藥材茅香八斤六兩 前胡一斤五兩 桔梗九兩 眞圭十兩 白芨二兩 乾地黃二兩 七月令安息香一斤五兩 白芨二兩四錢 胎水一合 清蜜二升 十月令大棗一斗五升 前胡十四兩 山藥五兩八錢 油紙一張陳 賀進上大束二斗二升 乾雉四首 到界進上 清蜜一升九合 活雉三首].

호의 비중(66.1%)은 가장 높다. 또 양반호 중 유학의 비중은 강외면, 북면과 함께 98%로 절대적인 수치를 보여 관아와 향교에서 멀수록 유학호의 비중이 높은 것과 같은 현상이다. 조곡리와 탕산리, 풍계리 등 3개 리를 제외하면 모두 양반촌이라 할 만큼 유학호의 비중이 높다.

鳥谷里는 5개 통 24호 중 유학 4호와 불명 1호를 제외하면 19호 모두 중인호로 볼 수 있다. 金谷里는 1872년 회인현 지도에 처음 보이는데, 2개 통 12호 중 역인 1호·궐호 1호를 제외하면 모두 유학호로, 타성 1호를 제외하면 모두 梁氏이다. 이들은 남원양씨로 梁誠之의 8세손 梁渭源이 숙종 때 진천에서 이곳으로 입향하여 세거한 것이라고 한다.<sup>50)</sup> 이곳은 일제강점기 특색 있는 ‘동족부락’으로 당시 350년 전에 형성된 남원양씨의 집성촌이라 하였다. 전체 47호 중 35호 230인이 남원양씨로 구성되었다.<sup>51)</sup>

남면의 관장리 2호와 사탄리 1호 등 店人 3호는 남면에서만 보이는 직역인데, 老城山의 水鐵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sup>52)</sup>

강외면과 북면은 4개 리에 불과한 작은 면이다. 집성촌이 있는 강외면이 회인현에서 가장 적은 편호와 남정수를 가지지만 양반호의 비중(62.8%)은 편이며, 두 면 모두 품관직 1호를 제외하면 모두 유학하다. 중인호도 한량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sup>53)</sup>

강외면 행정리는 4개 통 20호가 편제되었는데, 1통 5호와 4통의 5개 호 등 6호를 제외하면 모두 梁氏로 신분·지역 또한 모두 幼學이다. 현재 회남면 산수리에 편입되었으며 남원양씨의 집성촌으로 10여 호가 거주한다.<sup>54)</sup>

50) 이상순, 2005. 앞 글, 13쪽.

51) 조선총독부, 1933. 앞 책, 757쪽. 또한 금곡리의 토지 경작형태를 알 수 있는데, 47호 중 地主自作 13호, 自作兼小作 18호, 小作 11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원양씨 중가는 경기 김포에 거주한다고 한다.

52) 『신증동국여지승람』 회인현, 土産 : 『여지도서』 회인 物産.

53) 북면은 중인호 20호 중 한량이 20호다.

54) 남면 금곡리의 남원양씨가 숙종 때 입향하였다는 것에 비해 이곳의 남원양씨는 임진왜란 후 양성지의 현손 梁希崐이 피난 오면서 세거하였다고 한다. 아무튼 행정리는 양씨 입향으로 새로운 리가 생긴 것이라 할 수

4개 리의 북면 중 등곡리는 1통 3호에 불과한데, 그나마 통수호를 제외한 2호는 결호이다. 1789년 편제된 이후 영세함을 면치 못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지명 비정이 불가능한 곳이다. 수곡리는 3개 통 17호로 결호 1호를 제외하면 모두 유학호이며, 지경동리 4개 통 21호 중 중인호 3호, 양인호 1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유학호로 양반촌이라 할 수 있다. 북면의 중인호 비중 24.1%는 비슷한 규모의 강외면이나 외곽의 서면과 남면이 19%인데 비해 높은 편이며, 계산리에 집중된다.

이와 같이 면리별 신분·지역의 구성 비교를 통해 양반촌과 중인촌, 양인촌을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양반촌은 영해박씨의 읍내면 늘곡리, 단양우씨의 애치리, 남원양씨의 남면 금곡리, 문화류씨의 읍내면 고초촌리, 하음봉씨의 서면 동막동리를 들 수 있다. 중인촌은 읍내면과 동면에 비해 중인호가 상대적으로 적은 남면과 북면에서 나타나는 데, 각 조곡리와 계산리를 들 수 있다. 양인호의 지역으로 판단한 약리와 약보가 집중된 서면 가정자리와 마구리를 양인촌으로 나눌 수 있겠다. 양인호 중 특징적인 점은 驛屬人은 모두 27호(역리 12·역인 14·역졸 1)로 驛이 전혀 없던 회인현의 현황과 서면에 馬九里·馬場里 등 말과 관련된 지명이 보이지만, 실제 역속인은 6개 면에 고루 분포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남정책의 성씨 구성을 살펴보자. 회인현의 토성은 조선 초기 『세종실록』 지리지에, “土姓二 李洪 亡姓二 張辛 續姓一 崔(今爲鄉吏)”라 하여 회인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이씨와 홍씨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영조 때의 『여지도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이 본현 성씨로 李·洪·張·辛을, 속성에 최씨라 하여, 조선 초기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조선 후기 회인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의 존재를 찾기는 쉽지 않다.<sup>55)</sup>

있다.

55) 회인이씨는 지금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회인홍씨는 현재 당홍계의 남양홍씨와 합본한 상태이다. 위 표에 나타난 이씨와 홍씨의 본관을 회인으로 보기 어렵다. 회인홍씨의 인물로는 1471년(성종 2) 佐理功臣 1등에 책록된 洪允成(1425~1475)이 유명하나 이후 과거 급제자가 거의 없다.

남정책은 영해박씨·남원양씨·단양우씨를 제외한 여타 성씨의 본관을 알 수 없으니 단순히 성으로 구분한 호수는 부록 표와 같다. 곁호를 제외한 1,246호를 성별로 나누어 보았다. 이 표에 나타난 성씨의 현황은 조선 말기 회인현 향안에 나타난 성씨와 비교할 수 있다. 1898년에 입록된 『鄉員仙案』과 『鄉員案』은 각각 241명과 360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sup>56)</sup>

두 향안에서 가장 많은 성으로는 박씨 129명, 양씨 106명, 우씨 68명, 이씨 57명, 김씨 47, 한씨·홍씨 각 30명, 송씨 23명 등이다. 이러한 성씨별 향안 입록 인원은 남정책의 성별 인원과 비교할 수 있다.

남정책은 김씨 256호, 이씨 139호, 박씨 114호, 정씨 69호, 최씨 63호, 양씨 54호, 류씨 48호, 오씨 36호, 홍씨 35호, 우씨 34호, 윤씨 32호, 조씨 31호, 한씨 29호의 순서이다. 양반만 등재된 향안과 비교하면 김씨의 경우 중인·양인호가 51호(19.9%)로 다른 성에 비해 많고 본관이 다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양씨는 중인 1호를 제외하면 53호가 모두 양반호로 분류할 수 있고, 류씨 48호는 모두 양반호이다. 양반호 중 『향원선안』의 입록자에서 명단이 확인된 경우는 모두 73명이다.<sup>57)</sup> 이들의 신분·지역은 유학 70명,<sup>58)</sup> 통정 2명, 진사 1명이다.<sup>59)</sup> 또

회인홍씨의 과거 급제자로는 1507년(중종 2) 貢生 출신으로 생원에 입격한 洪士炯이 있다. 거주지는 미상이다. 또 1583년(선조 16) 連山 거주 洪汀과 1637년(인조 15) 대구 거주 洪大日이 무과에 급제하였을 뿐이다.

- 56) 이상순, 2005. 앞 글의 향안 입록자 중 향안 9와 향원안10만 뽑아 정리한 것이다.

구분	高	具	吉	金	閔	朴	奉	成	宋	申	沈	安	梁	吳
향안9	5	1	3	20		50	4	1	7	1	1	2	47	2
향원안	9	1	3	27	2	79	4	1	15	4	3	2	59	6
계	14	2	6	47	2	129	8	2	23	5	4	4	106	9
구분	禹	柳	尹	李	林	鄭	趙	池	蔡	崔	韓	洪	黃	계
향안9	29	1	2	20	3	10	2		1	2	13	13	1	241
향원안	39		4	37	7	12	5	1		3	17	17	3	360
계	68	1	6	57	10	22	7	1	1	5	30	30	4	

- 57) 이 향안이 1898년 작성된 仙案이라 한다. 남정책과 비교할 때 통정 吉履祥의 경우 1876년 83세로 향안의 작성 시기에는 이미 죽은 것으로

1898년 『향원안』에 수록된 360명 중 남정책에 이름이 드러난 인물은 모두 58명으로 모두 유학이다.<sup>60)</sup> 『향원선안』과 중복되는 인물은 3명으로,<sup>61)</sup> 중복 인물을 제외한 이들 128명을 집성촌과 비교하면 놀곡리의 영해박씨는 28명, 애치리의 단양우씨는 10명,<sup>62)</sup> 금곡리의 남원양씨 9명, 행정리의 남원양씨 7명, 동면 신문리의 제주고씨 8명<sup>63)</sup>과 서면 거교리의 청주한씨 6명 등 본관·성씨를 알 수 있는 인물은 모두 68명으로 세거 성씨의 현황을 이해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남정책에 유학으로 수록된 성씨 중<sup>64)</sup>에서 1898년 향안에 수록되지 않은 성씨로서 3호 이상의 성씨는 姜·康·權·盧·裴·徐·孫·張·全·車·河·許氏 등이다.<sup>65)</sup> 한편 남정책에 양반호가 없는 성씨는 方·白·沈·周·陳·皮·

볼 수 있다. 남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령을 통해 남정책 전후의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닐까 한다.

- 58) 유학 중 남정책에 신분·지역이 표기되지 않은 인원은 9명이나 부의 신분·지역으로 구분하였다.
- 59) 통정은 동면 능암리의 84세 鄭聖洙와 남면 거교리의 83세 吉履祥이다. 아마도 80세를 넘기면서 壽職으로 교지를 받은 것이 아닐까 한다. 반면 남면 신대리의 李學洙는 84세임에도 유학이다. 통정을 반드시 壽職으로만 볼 수 없는 사례이다. 진사는 서면 묘암리의 趙漢岐로 1865년(고종 2) 을축 식년시에 2등 6위로 입격한 인물이다. 『사마방목』에 1832년에 태어났다고 하니 1876년의 남정책에 45세로 되어 있어 남정책의 작성 시기를 뒷받침한다.
- 60) 『향원안』10에 보이는 朴基萬과 동명의 인물이 읍내면 마근동리 거주 장교 朴基萬이다. 만일 동일인물로 보면, 중인호로 간주한 장교나 首校에 대한 재분류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남정책의 박기만은 연령이 46세로, 『영해박씨족보』에서 확인한 1827년생 박기만과는 3년의 차이를 보인다. 영해박씨 박기만은 1827년(순조 27) 丁亥生으로 을사년에 졸하였다. 품계는 통정대부라 하였고, 부인 안동김씨와의 사이에 5남 1녀를 두었다.
- 61) 남면 금곡리의 梁柱雙(28세)과 강외면 행정리의 梁賢洙(73세)·梁柱河(38세)로 모두 남원양씨로 볼 수 있다.
- 62) 읍내면 지산리는 협인을 포함하면 모두 14명인데, 그중 4명의 우씨가 향안에 입록되어 있어, 단양우씨는 모두 14명이라 할 수 있다.
- 63) 동면 신문리의 제주고씨는 임진왜란 후 高大益이 입향하여 세거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보은문화원, 2000. 『보은의 지명지』, 351쪽.
- 64) 孔·南·閔·方·蘇·溫·俞·庚·周·陳·皮·咸氏는 1호에 불과하다.
- 65) 1898년 『향원안』에는 柳氏와 蔡氏가 빠지고 새로이 閔氏와 池氏가 입록되었다.

扈氏 등이다.

끝으로 회인현 각 면리의 統首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통수는 대체로 양반 신분이 기피하던 것이라고 하나, 실제 남정책에는 유학을 포함하여 다양한 신분·직역이 나타난다.

읍내면 통수(73)의 신분·직역은 유학 35·한량 18·양인 4·공생 3·업유 2·업무 2·군관 2·백호 2·守僕 1·역인 1·일수 1·절충 1·참봉 1인, 동면 통수(72)는 유학 45·한량 19·양인 3·업무 2·공생 1·동몽 1·화포 1인, 서면 통수(47)는 유학 36·한량 5·약보 4·양인 1·업무 1인, 남면 통수(36)는 유학 27·한량 4·업유 3·교생 1·역리 1인, 강외면 통수(14)는 유학 12·통정 1·한량 1인, 북면 통수(16)는 유학 14, 출신·통정 각 1인으로 전체 신분·직역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다.

#### IV. 맺음말

현재 보은군의 2개 면에 불과한 회인현은 1914년까지 독립 현으로 유지되던 곳이다. 회인현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던(삭제)던 것은 호적대장과 같은 자료의 부족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래서 男丁 명부에 불과한 1876년 『회인현 남정책』은 사료의 부족을 그나마 메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남정책과 그 이전의 지리지를 통해 회인현의 지명 변화를 살펴보았다. 面勢는 읍내면과 동면의 경우 보다 동쪽으로 외연이 확대되었고, 서면과 남면은 각각 서쪽과 남쪽으로 확장하였다. 잔폐한 회인현에 할숙된 강외면과 피반령 이북의 북면은 대체로 그 형국을 유지하였다. 면리의 확대는 편호와 호구의 증가를 수반한 결과였다. 호수는 조선 전기에 비해 6.6배, 호구는 4.5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후기에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반면 면별 리·통수는 대부분 小里의 크기에 불과하였다. 다만 남정책에 이르러 늘어난 편호에 비해 남정수가 감소한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다.

회인현의 신분구조는 양반·중인·양인·천민으로 대별한 후 면별 비율과 신분·직역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19세기 중반 이후 양반호가 70% 이상이라는 이해와는 달리 56.3%에 불과한 결과를 찾았다. 그것은 19세기 말까지도 세거 성씨의 우세가 유지되던 상황과 결부지어 다른 지역에 비해 늦은 신분제의 해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면별 신분·직역의 구성을 통해 중인호가 우세한 읍내면과 동면은 관아와 향교가 위치한 결과로 보았고,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유학호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그 중 놀곡리의 영해박씨, 애치리의 단양우씨, 금곡리와 행정리의 남원양씨, 고초천리의 문화류씨 등 집성촌과 세거 성씨의 존재가 더욱 드러났다.

남정책은 신분제가 해체되어 가는 현상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체된 특정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남정책에 우세를 점하는 여러 성씨에 대해 족보 파악과 현지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얻어져(삭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다. 향후 현장 조사를 포함하고 나아가 경자양안의 토지 소유 관계를 점검한다면 중세 해체기 회인현의 현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접수:2012.10.31, 심사시작:2012.11.25, 심사완료:2012.12.04]

주제어 : 회인현, 회인현 남정책, 향안(鄉案), 신분·직역, 면리(面里), 편호·원호(編戶·元戶), 양반호, 중인호, 양반촌, 중인촌, 양인촌, 집성촌

## 부록. 성씨별 신분·지역

姓	호수	양반호	증인호	양인호	천인호	불명
姜	23	유학(4)	공생(1)·한량(10)· 업유(1)·군관(1)	樂保(3)·양인(3)		
康	5	유학(4)	한량(1)			
高	25	승정(1)·통덕(2)· 유학(16)	한량(1)	역리(1)·역인(2)· 역졸(1)		1
孔	1	유학(1)				
郭	4	유학(1)	한량(2)·업무(1)			
權	10	유학(4)	한량(3)·교생(1)	일수(1)		1
吉	1	통정(1)				
金	256	유학(103)·가선(3)· 통정(2)·참봉(1)	공생(2)·한량(66)· 업유(9)·업무(4)· 충의(6)·군관(1)· 동몽(3)교생(3)· 교보(1)	약리(1)·역리(3)· 양인(17)·백호(7)· 보인(2)·약보(12)· 역인(4)·일수(3)· 화포(1)		2
南	1	유학(1)				
盧	11	유학(8)	한량(2)		사노(1)	
都	2	유학(2)				
羅	2	유학(2)				
柳	48	유학(37)	한량(6)			5
文	3	유학(1)	업무(2)			
閔	1	유학(1)				
朴	114	생원(1)·유학(66)· 통정(1)	한량(30)·업유(2)· 장교(1)·군관(2)	역리(2)·양인(1)· 보인(1)·약보(1)· 역인(2)·화포(1)		3
方	1		한량(1)			
裴	7	유학(5)	한량(2)			
白	3		한량(1)	양인(1)·약보(1)		
奉	12	유학(11)	동몽(1)			
徐	14	유학(7)·가선(1)·통정(1)	한량(3)	약보(1)	사노(1)	
成	4	유학(3)				1
蘇	1	동몽(1)				
孫	8	유학(3)	한량(4)	양인(1)		
宋	24	유학(18)·통정(1)	한량(4)	일수(1)		
申	20	유학(15)	한량(1)·동몽(1)· 통정(1)·출신(1)	일수(1)		
沈	2		한량(1)·교생(1)			

姓	호수	양반호	증인호	양인호	천인호	불명
安	11	유학(8)	동몽(1)·군관(1)			1
梁	54	유학(49)·관관(1)	한량(1)·교생(1)	역리(1)		1
吳	36	유학(29)	한량(2)·업무(3)· 교생(1)·공생(1)			
溫	1	유학(1)				
禹	34	유학(32)	한량(1)·동몽(1)			
劉	4	유학(1)	동몽(1)	양인(1)·守僕(1)		
俞	1	유학(1)				
庾	1	유학(1)				
尹	32	유학(20)	한량(2)·교생(3)· 공생(1)	양인(4)		2
李	139	유학(79)·가선(1)· 통정(1)·절충(1)·중친(2)	한량(30)·업무(1)· 업무(2)·공생(2)· 동몽(3)·교생(1)· 족친위(2)	양인(3)·백호(1)· 보인(2)·역인(2)· 일수(3)		3
任	2	유학(2)				
林	16	유학(9)	한량(1)·업무(1)· 업무(1)·군관(1)	양인(1)·역인(1)	재인(1)	
張	14	유학(7)	한량(2)	양인(1)·백호(1)· 역인(2)·일수(1)		
田	3	유학(1)	보직(1)	약보(1)		
全	5	유학(4)		양인(1)		
鄭	69	유학(27)·통정(1)·통덕랑 (1)	한량(23)·업무(2)· 업무(1)·공생(8)· 군관(1)	역리(2)·양인(1)· 역인(1)·점인(1)		
曹	3	유학(2)	한량(1)			
趙	31	진사(1)·유학(15)	한량(6)·업무(1)· 동몽(2)·군관(1)	역리(3)·백호(1)· 일수(1)		
朱	2	유학(1)	한량(1)			
周	1		한량(1)			
池	2	유학(1)			재인(1)	
陳	1		한량(1)			
車	11	유학(8)	한량(2)	양인(1)		
蔡	4	유학(3)				1
崔	63	유학(16)·가선(1)· 통정대부(1)·절충(1)· 통덕랑(2)·참봉(1)	한량(22)·업무(2)· 공생(4)·교생(1)· 수교(1)	양인(9)	사노(1)	1
皮	1		업무(1)			

姓	호수	양반호	중인호	양인호	천인호	불명
河	5	유학(5)				
韓	29	유학(24)	한량(5)			
咸	1	유학(1)				
許	4	유학(3)			사노(1)	
扈	4			양인(2)·점인(1)		1
洪	35	유학(19)	한량(9)·향리(1)· 공생(4)			2
黃	24	유학(13)·同知(1)· 통정(1)	한량(4)·업유(1)· 동몽(1)	양인(1)·점인(1)		1
	1,246					

<ABSTRACT>

Heoinhyun's Social Status, Occupational Function in  
Late Chosen and *Namjungchaek*

Kang, Min-sik

Chungcheongdo Heoinhyun remained as Gunhyun until 1914 and now it belongs to two myuns of Boeungun. Through *Namjungchaek* which was written in 1876, the structure of myun-rhee in hyun, social status, occupational function of those days can be acknowledged.

*Namjungchaek* is compiled with the information of six myuns and rhee, tong, ho which belongs to each myun. First of all, each myun's rhee was constantly expanded course by course. The boundary of Eupnaemyun and Dongmyun were more expanded to the east; Seomyun and Nammyun were each extended to the west and the south; Kangeoimyun and the northern part of Peebanryung, which belonged to the remained Heoinhyun, usually maintained their situations. The expansion of rhee was resulted from the increase of pyunho and hogu. In late Chosun dynasty, the number of ho increased 660 percent more than the early Chosun period; hogu increased 450 percent than then; both of them continuously increased until the latter period of Chosun dynasty. In contrast, the number of rhee and tong per myun were similar to only smaller myun.

I analyzed constitution of each social status in Hoeinmyun by 1) dividing the population into Yangban, Jungin, Yangin, Chunmin and then 2) researched the proportion of those status per myun, the states of status, and occupational functions. Contrast to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that Yangbanho were over 70 percent after mid-19<sup>th</sup> century, the proportion of it in Hoeinmyun were only 56.3 percent.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dissolution of social status in this place occurred much later than other region, which is caused by the residing clans' fundamental domination of the region, whom grasped the local consensus.

Through this analysis, I discovered that the found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e and the local educational institute, Hyanggyo, caused the predominance of Junginho in Eupnaemyun and Dongmyun. Also it is clear that both the proportion of Yuhakho and their influence were increased in the local borders. The residing kin like Younghae Parks in Nulgokrhee, Namwon Yangs in Gungokrhee and Hangjungrhee, and Munwha Ryus in Gochochoenrhee predominantly constituted collective and systematic residence in those areas.

Keyword : Heoinhyun, Heoinhyun *Namjungchae*, Hyangan, Social status, Myunri, ㄷ|yunho · Wonho, Yangbanho, Junginho, Village of Yangban, Village of Jungin, Village of Yangin, Jipsungchon